

여성

특집 여성의 경제력에서 여권신장이 나온다!

간담회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

일시: 1993. 9. 7 (화) 14:00 장소: 여협 2층회의실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3
9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세탁혁명
**공기방울이
양복까지 빨아준다!**

공기방울이
제트수류와 만나
이제 **실크의류**는 물론
양복세탁까지
해드립니다.

■ DWF-9290RD(9.2kg)
₩720,000

표입은 적어지고 양복까지 깨끗하게

대우 공기방울세탁기 Z 제트

● 소비자상담실 : 서울 360-8282, 080-(02)-8254-8888(월~수신자요금 부담) ● 표시된 가격은 전세(부가세 포함)



몸에 좋다 바리바리 싸주시며
항상 자신만을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혈액순환을 두루두루! 말초혈관도 고루고루!



●포장소매가 100알裝 ₩21,000
●무수익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인증에서
당첨된 의약품에 생산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생마늘 기름으로 만든 혈액순환개선제 - 두리방

1년에 한 두번 떨궈낸 찾아뵙는
자식인데도 몸에 좋다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시는 부모님 -
당신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자식 걱정이신 부모님께
두루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혈액순환에는 역시 생마늘 기름입니다.
두리방은 바로 이 생마늘 기름으로 만듭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혈액순환에는
역시 생마늘기름으로 만든 두리방이 좋습니다.



월간 여성

월간여성 9월호
통권311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금융실명제와 여성 / 백정란

특집 / 여성의 경제력에서 여권 신장이 나온다

6 **특집1**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 부과는 현실에 맞지 않아

13 **특집2** 실명시대의 재테크
달라지는 재산증식 방법

16 **특집3** 여성유망 직종
자격증 있는 전문직종이 유망하다

22 **여성학** 지성강좌
여성의 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이해 / 추애주

26 **해외여성통신**
통일독일의 여성문제 그리고... / 이영님

28 **여성계 동향** / 김효선

29 **협의회 소식**

31 **우리들의 광장**

금융실명제와 여성

검은돈이 발 붙일 수 없는 밝은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실시한 금융실명제 실시는 너무도 당연한 제도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당위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장기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고 건전하고 정직한 실명 거래로 인하여 정직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제도의 개혁이나 변화가 있을때마다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신뢰가 전폭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핵심이 실명거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액을 추정하며 실명전환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해서 비실명임을 밝히고 과징금과 90% 소득세율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시에 있어서는 사정의 논리가 가미된 발동이기 때문에 소요와 불안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고 순수하지 않은 점들 때문에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탈세를 인정했다면 그 원인이 모두 국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조세제도나 조세징수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나? 정부는 혹하면 국세청조사단, 세무사찰이다, 무슨 조사 무슨 조사다 벌인다.

기업과 아무 관계 없는 국민들까지도



백정란 (본회 회장이사)

정부가 궁하면 국민을 협박한다고 느껴져 불쾌하고 우울하다. 금융제에 대하여도 그렇다. 지금까지 국책은행이나 일반은행에서 비실명임을 알고 예금을 받았으며 CD의 경우 권장 상품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주 이름을 보자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정부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과거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이다.

이처럼 일관성도 없고 연계성도 없는 정부를 우리 국민은 따라가야만 하거나 대처하지조차 숨가쁘고 허기진다.

참으로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이 올바른 가치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이쪽 저쪽으로 밀리고 밀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둘을 단절 자격이 있는가?

차라리 우리가 바라기는 미국의 신문팔이 소년의 수입도 정당하게 세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정직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우선해가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입에 올리기도 자존심 상하는 여성의 차별대우다. 실명제에서도 뒤질세라 여성전체를 슬프게 했다.

결혼후 봉나물값 아끼기, 수도물 아끼기, 그 흔한 유명브랜드 옷 한번 못 사입고 할인매장을 찾아다니며 알뜰살뜰 저축하며 재산증식을 했더니 부인재산은 몇 % 운운한다.

결혼이후 재산형성의 절반이 아내의 몫인 것은 남자들이 제일 잘 알 터인데 말이다.

다행히 재무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 "결혼후 형성재산 절반 배우자 소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적으로 환영하며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배우자 상속재산 전액을 면세해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주시기를 제안하며 금융실명제가 꼭 성공되어 정직한 국민으로의 가치관이 형성되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내면에서 생성되기를 전심으로 기원한다.

특집

여성의 경제력에서 여권신장이 나온다.!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남성 못지않게 물질·경제적 토대를 여성도 갖추어야 한다. 경제력은 곧 힘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본지는 금융실명제 시대를 맞아 여성의 재산권·경제력에 대한 여성들의 자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가 지난 9월 7일 개최한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간담회 내용과 실명시대의 달라지는 재테크, 그리고 여성유망직종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호 특집을 꾸몄다.

간담회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

일시: 1993.9.7(화) 14:00 장소: 여협 2층회의실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특집 1 /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간담회

부부간 증여세 · 상속세 부과는 현실에 맞지 않아

참석자: 임동빈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 서기관)

이양자 (세무사)

이필영 (상업은행 영동출장소 소장)

그외 여성단체장 및 관련인사 50여명

사회: 이연숙 (여협 부회장)

사회: 오늘 이자리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여성의 재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고 또 혹 잘못 알고 있는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8월 12일 긴급명령 형식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20여일 지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 파악된 점은 어떤 두려움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82년부터 사실 실명제가 실시돼 온 것인데, 다만 그때는 모두 실명으로 하도록 한것은 아니고 일부 실

명으로 하지않을 경우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 되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실명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예금할때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자녀명이나 무슨 무슨 닉이라 고 한 주부가 더러 있었는데 저희들은

명의로 하지않을 경우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 되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실명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찾아주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보다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어떤 기우-내 예금액이 모든 이에게 공개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예금 다 빼이는 건 아닌가 하는 기우, 괜한 불안감 괜한 고민을 하다가 보니 여러 의문이 생기고 밤잠을 설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비밀보장이 확실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예금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 없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인출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빼내서 귀속을 구입하고 땅을 사는 등 움직이면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로 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문제도 생기고 또 그것을 해명해야 되고 그돈을 어디서 벌었는가를 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확인하건대 '금융기관에 놔두는 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하고 재무부장관이 이야기하고 국세청장이 이야기해도 잘 안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차꾸 저희가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명제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질서를 바르게 하고 결국 이로써 사회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돈 거래를 전부 실명으로 기록해 놓을 뿐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실명제 실시이후 느낀 것인데, '국세청에 통보한다'라는 말의 위력, 무서움입니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명 전환이 30세이상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인찌 여부조사키 위해서고 또 2개월에 걸쳐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실명제 이후 돈 빼서 부동산 투기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거나 장농속에 감춰두는 일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실물거래 통보'라 해서 채권이나 CD를 사서 장농속에 놔두는 경우에 대비해 8월 12일 이전 발행된 CD나 채권이 금융기관에 나타나 5천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다 세무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준이 넘는 경우 또 탈세나 부동산 투기, 호화사치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이신 여성지도자 여러분께선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적극 홍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 입서기관님의 말씀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필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해오면서 그간 저축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저축을 적극 권장해온 한 사람으로서, 금융실명제가 걸은 돈, 세금 포탈 한 돈, 지하경제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심분 이해하지만 몇몇한 돈, 정말 열심히 저축한 돈까지도 걸은 돈으로 연관될까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혼란해하는 분들의 사례를



임동빈

실명제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질서를 바르게 하고 결국 이로써 사회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돈 거래를 전부 실명으로 기록해 놓을 뿐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선 금융창구에서 많이 접합니다. 동요되고 있는 사례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리고 그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금융실명제가 정말 본론이 뿌리내리는데 한 역할을 해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자체에 뜻을 두고 실명확인 작업을 해오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점은 바로 세무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고 최고의 관심이 증여세·상속세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금에는 국세청 통보·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예금액수를 낮추기 위해 2천5백, 2천만원씩 편히 인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성실하게 모은 부, 실명으로 정직하게 떼떳하게 모은 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존경받을 부라고 했고 저회도 계속 설명하지만 자신의 문제로 와 닿을때 그 5천만원이라는 기준때문에 사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1억정도 되는 가계신탁이 1년이 넘어서 이자가 잘 붙고 있는데 이 통장을 가져와선 "난 전업주부인데 이것을 남편이름으로 돌려야 할까요"하고 재무부 실시단이나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면 "글쎄요 실명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남편이름으로 돌려 놓으시는 것이 나중이라도 본인의 돈임을 입증해 보일 수 있겠지요"라고 응답한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올상입니다.

현재 이런 문의·상담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어떤 주부는 정말 잘 먹고 잘 쓰고 호화사치한 사람들은 이를 누리기라고 했는데, 정말 안쓰고 아껴 저축한 돈에 증여세가 물리면 다 때



이 필 영

부동산 투기나 사채시장을 이용치 않고 그보다 낮은 이익률의 은행을 진솔하게 이용하더라도 2~3 억원은 모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 경제단위입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보태 4~5 억이 된다 하더라도 검은돈, 거액이기 때문에 부당한 돈으로 연결짓는 시각은 앞으로 저축장려에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것 아니냐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또 어떤 주부는 자조적으로 "우리 이제 좀 쓰고 살자. 돈 아끼느라고 구입하지 못한 차도 큰 것으로 사고 가구를 좀 들여놓고... 일단 현금으로 좀 찾아가자. 단위를 어쨌든 줄여야지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머리 잘 써가면서 투기하고 세금 피해가는 그런 검은 돈 말고 순수하고 진지한 서민 주부들이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개념아래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기쁨도 없이 무슨 재미로 그렇게 열심히 모으겠느냐하는 자조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지출요인 때문에 일반고객들이 별 용도도 없이 이자 잘 붙어나가는 돈을 그냥 찾아가합니다.

'가계자금'이 은행에 들어와서 기업

에 재투자된다, 소득이 높아도 근검 절약해 저축하는 것이 이상적인 국민성이다'하는 신념으로 저회 은행인들은 은행예의 예금을 권유했고 또 은행에 예금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8월 31일에 후속 보완된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실명전환시 5천만원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40세 이상 주부의 1억원까지는 세무조사 안한다고 확실히 밝혀 안심시켜 주시고 실명으로 된 예금에 대해서 자금추적 안한다고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억정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곧 기득권층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아주 저소득층 사람들의 항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실시단, 국세청에서 다 고민

하시는 바로 아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5억 또는 7~8억의 거액일지라도 정당하게 예금을 모은 흔적이 있다면 보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얼마까지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5년에 1천5백만원씩 자녀에게 증여해도 아무런 증여세를 물지 않는데, 만약 20년전에 1천5백만원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20년후 지금 현재 은행 금리로 2억2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씩 두번해서 3천만원을 자녀에게 물려 주었으니 그후 20년이 흐르면 정당하게 4억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나 사채시장을 이용치 않고 그보다 낮은 이익률의 은행을 진솔하게 이용하더라도 2~3 억원은 모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 경제단위입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보태 4~5 억이 된다 하더라도 검은돈, 거액이기 때문에 부당한 돈으로 연결짓는 시각은 앞으로 저축장려에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점이 충분히 고려돼 떼떳한 돈, 정당한 돈의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앞으로 재무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부처에서 정확한 홍보와 함께 배려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부 저축자들도 투명사회로 가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안내심을 갖고 지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많은 주부들이 요즘 화를 내는 부분은 바로 전업가정주부의 1년 가치를 1백만원으로 친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파출부도 한달에 60~70만 원을 버는데, 그 외에 아기 낳아 기르고

남편월급으로 재산을 키우는 이런 큰 일을 하는데도 1년에 1백만원이라니... 하고 크게 분개해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이 세무사님께서 현 세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자: 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자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증여세만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업주부가 과연 결혼생활 동안에 불로소득을 한 것이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정생활에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상속세에서 그나마 배우자의 기초공제분에 참고되는 것은 가사노동 부분이지 가정관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가정관리부분은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 재산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쳐 놓고서라도 가사노동 측면은 그 가치측정이 용이하므로 우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재무부나 정책당국에서 먼저 가치 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는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남편이 가져온 월급에서 저축을 하고 재산을 늘렸다면 그것에는 분명 주부의 기여분이 있고 주부의 노력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 무촌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전이 동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정산세를 적용시켜 보면 상속세를 비과세로 하자는데에 타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사람이

내것 내것 가리지 않고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드디어 정리하는 과정이 온 것인데, 남편의 사회적 노동의 가치와 아내의 가정내 노동의 가치가 합쳐졌던 것을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사망으로 인한 정산세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일반인식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체의 물질적 기초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일반인식에 비춰볼때도 부부간 증여나 상속은 진정한 증여·상속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 정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증여분에 대해 비과세해야 되는 이유로는 일종의 생계보장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이 잘 돼 있으면 노후에라든지 남편의 사망시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은 아직 사회보장이 미비하며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 입장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증여분에 대해선 비과세 해야 합니다.

또 민법의 법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법 1008조의 2를 보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곧 상속재산분으로 본다는 취질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과세할 때, 기여분은 제외라는 1008조 2의 법정선에 비추어 볼때 당연히 배우자간에는 비과세해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배우자 상속, 증여분에 대해선 공제를 확대하고 비과세해야 하는데, 또 전부를 비과세

하기에는 실제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배우자에게는 전액 비과세해야 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25년이란 기준은 한세대의 교체기간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25년 이하일 경우에도 현행처럼 결혼연도만 생할 것이 아니라 퇴직금 산출방법처럼 누진계산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측에서 우려할 수 있는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는 기우를 없애기 위해 과세방법을 빨리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공제할 것 공제하고 거기다가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정하는 현재 유산세제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 각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정한다면 배우자분을 비과세 하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말 불로소득인 경우의 과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부부별산재를 부부공동유제로 바꾸는 것이 현 사회인식과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해라, 5천만원이하는 조사 안하겠다, 40세 이상 1억까지는 조사 안하겠다... 이런 말들은 뒤집어 보면 언젠가는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언젠가는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없이 아예 세법을 고쳐 일정기간 이상 결혼생활한 부부간의 금전이동에는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권력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며 그것은 100% 불로소득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감있게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숫자도 우린 이해가 안됩니다. 상속에 대해서선 결혼 1년 기간에 1천만원을 파주고 증여에 대해서 1년에 3백만원을 파주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금액을 정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노력의 소산인 재산분에 대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정도의 결혼생활기간을 그 기준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사회: 이 소장님과 이 세무사님의 말씀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 우리는 흔히 증여세란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업주부가 과연 결혼생활 동안에 불로소득을 한 것이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에 대해 임서기관님이 답해주시지요.

임동빈: 1억원이 넘는 예금이 23만 계좌입니다. 여기에는 한분이 두계좌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1억8천만 계좌의 1/1000에 불과하는 숫자입니다. 1/1000이면 사천만중 사만명 정도가 1억원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다는 걸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천명중의 한명에 해당되는 사황을 이런저런 경우를 들어 면세해주면 재무부, 국세청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여자에게만 불리합니까. 부인 사망시 상속재산의 남편 공제분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결혼 1년기간에 그러면 남편의 기여도가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이나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백만원, 2백만원하는 금액은 결혼



이 양 자

년수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지 가사노동의 가치를 그 금액정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배우자 공제도 도입된지 얼마 안되고 점점 공제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시겠지만 서서히 세법, 민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차별없이 똑같이 공제되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금에 있어서 그 자금출처조사 제외기준을 1억이다, 2억이다 정하는데에는 정말 어려움이 큼니다.

1억이라는 발표를 하고서 '무슨 소리냐 왜 그리 금액이 크냐'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기준 금액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한단체를 운영해 나가다보면 심지어 동창모임을 꾸려나가더라도 회비등을 관리하는 예금통장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 회장들이 자기명의로 안 하려 합니다. 이는 언젠가는 자기명의로 된 것은 뽕땅 세금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을 실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야지 그 이전 3년, 5년을 소급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임동빈: 납세번호, 부과세법에 따른 고유번호 등을 못 받은 단체, 모임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거래해야 하는데, 그때 그 옆에 그 회의 이름을 부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향후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면 그 대표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급문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금년 8월 12일부터 실시된 것이 아니라 82년도에 만든 법이 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너무 위반을 많이 하다보니 일반국민들이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행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것이 소급은 아니지만 감정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요.

류숙렬(문화일보 기자): 이번 실명제 실시를 놓고 일부 연세 많은 주부들 사이엔 이런 농담이 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법이 개정된 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겼는데, 증여세나 상속세나 해서 우리의 재산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때이느니 차라리 이혼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요구하면 오히려 우리의 재산권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농담이지만 그만큼 여성의 재산권에 제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임동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기간 1년의 1백, 2백만원의 금액은 결혼년수에 따른 공제차등을 두기 위한 단위이지, 결코 주부가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양자: 임서기관님은 남녀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맞벌이 부부가 소수이고 전업주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이 남편위주로 돼있습니다. 집

도 남편명의로, 땅도 남편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단지 예금만 자금출처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주부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지가계를 꾸려가는 주부이름으로 해놓으면 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세금문제가 대두되니까 괜히 부인앞으로 해놨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법은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인식을 한 것뿐이지요.

임동빈: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가 30년 된 경우 2억8천만원인데 4억 정도로 상향 조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가고 또 현재 20년된 부부가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3천5백만원인데 9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처럼 저희는 점점 현실화시키고 시대흐름에 맞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필영: 금융기관에 가만히 놔두면 증여세 등 문제를 안삼겠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는 문의도 들어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종합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를 안하더라도 96년 그때 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이 많이 나오면 또 직장생활 한 적이 없는 소득원이 없는 주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자소득이 많을 수 있는지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빈: 개인적으로 권유하고 싶은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영 불안하면 세무조사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밝혀줄 것은 금융실명제로 인해 뜻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 실명제 실시의 본 뜻이라는 겁니다.

이필영: 공보처에서 나온 50문50답 중 30항에 부녀자·자녀의 명의로 된 예금은 증여세의 소지도 있으니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분명 들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기초공제액이 얼마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어, 주부들이 그런 조항에 구속감을 갖고 있는데 이완 별개로 또 '실명으로 돼 있다면 안심하고 그냥 되두라'고 하는 정부의 말에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임서기관님을 비롯해 정부측에서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주부들을 정말 안심시키려면 다시 한번 홍보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실명예금'으로 돼있는 경우 부부공동예금의 개념으로 봐서 꼭 남편 이름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주시고 그리고 현재 면제되는 한도액도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 확대 산정해주시길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금이 마치 차명계좌인양 취급되어 전환해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64.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 이필영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부가 명확하고, 혼동되지 않게, 앞뒤가 맞게, 일관성 있게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말 국민에게 고통을 함께 하는 개혁성공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동빈: 저는 행정부의 홍보 미흡으로 이런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불안 제거 타개책은 바로 세법개정이지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임서기관님의 말씀이 명확하지만 시점이 변동되면 이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조문자체가 여성의 위치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과거 한때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믿고 편한 불안감을 씻으시고 실명제 실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본적인 세법 조문에 규정화 되기 전에는 이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불안 제거 타개책은 바로 세법개정이지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임서기관님의 말씀이 명확하지만 시점이 변동되면 이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조문자체가 여성의 위치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김금래(여협 사무총장):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은, 금융실명제 발표 이후 여성단체가 무얼 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이라고 따로 구분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후 여성의 피해의식이 참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8월 31일 보완대책이 나와서 그 정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옛날부터 공간 열쇠는 다 여자가 맡아 관리해온 관습에 따라 집이나 부동산은 남편이름으로 해도 현금관리를 통한 재산증식은 주부가 해온 것인데 이것마저 세금 다 때이고 남편이름으로 전환해야 한단니까 이렇게 알뜰히 모아서 뭐하나 하는 허탈감, 허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성공하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지지를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소수 돈많은 사람들만 분리하고 그 나머지는 다같이 이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중산층 주부들도 금융실명제가 괜히 불편만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부에서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해서 보완책이 나왔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확고히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산층까지의 지지를 얻어 금융실명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사회의 문화변화나 현 여성 의식의 흐름에 맞는 법, 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명쾌하게 홍보해주셔서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정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 간담회를 마쳐겠습니다.



특집2 / 실명시대의 재테크

달라지는 재산증식방법

금융실명제 시대에는 주부들의 재테크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부담이 적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실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속속 개발해 내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의 이름을 빌려 세금우대통장을 여러개 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기도 했고 자녀 이름으로 많은 돈을 예금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도 했지만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같은 방

식으로는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부담이 적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실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속속 개발해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새로 선보인 금융상품들과 기존 상품중 세금면에서 유리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증권투자요령도 함께 알아본다.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할인식으로 발행돼 자유롭게 제삼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로 91일이상 2백70일짜리까지 있다. 특히 장당 최저발행한도가 5천만원에서 내달초부터 3천만원으로 낮춰지는 데 고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13%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은행창구에서 실명확인만 하고 살 수 있으며 증권사창구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

1년이상 장기저축자에 대해 이자소득의 5%만을 세금으로 낸다. 일반금융상품이 이자의 21.5%를 세금으로 내는데 비해 세금감면이 파격적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세금우대한도를 현행 원금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높인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가계우대 정기적금등이 있다.

가계금전신탁

입출금이 자유롭고 거래실적을 따져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은행이 고객의 소액자금을 모아 고수익 채권 또는 어음등에 투자, 수익을 올려 나눠주는 방식이다. 현재 해당수익률은 3~6개월은 년 6%, 1년이상은 년 11~13% 선이다.

내달초부터는 이 상품의 만기가 다양해져 23년짜리도 나온다.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18세이상 가입할 수 있으나 수익자는 만 40세이상이어야 한다. 일정금액을 매달 적립, 만기에 연금 또는 일시불로 받거나 일정금액을 신탁해 고율의 실적배당을 매달 받는 등의 방법이 있다. 신탁기간은 5년이상 1년 단위.

현재 가입한도가 1백만원이상 최고



1천5백만원으로 돼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최고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은행새상품》

장래설계통장

서울신협은행은 세금우대를 포함, 최장 12년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예금할 수 있는 「장래설계통장」을 개발, 지난 9월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계속 연결해 매달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목돈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혜택을 받아 실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장래설계통장의 가입대상은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실명의 개인이며 누구나 해당된다. 계약기간은 3년단위로 최장 12년까지 4종류가 있다.

이 상품은 우선 고객이 가계우대정기적금이나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원리금중 일부로 또 다시 3년짜리 적금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의 공모주 청약정기예금에 예치하는 형식을 반복토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12년동안 거래를 계속할 경우에는 모두 4차례의 적금과 3차례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셈이 된다.

이때 기본계약인 근로자장기저축과 가계우대정기적금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입한도와 세금부담 및 실수익률에 차이가 있다.

근로자장기저축을 선택할 경우를 보면 매달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이때의 세금은 모두 면제돼 연평균 수익률은 11%가 된다. 3년후 적금에 다시 가입하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1천2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아 6년이 지났을때의 연평균 수익률이 11.8~12.3%로 높아진다.

9년 후에는 12.6~13.8%, 12년 후에는 13.6~15.6%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온다.

가계우대정기적금으로 시작했을 때에는 1만원에서 24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평균 수익률은 3년후 10.9%, 6년 11.8~12.3%, 9년 12.7~13.8%, 12년 13.7~15.5%가 된다.

1인당 최고 저축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 가계우대정기적금으로 중역세면제범위인 월 24만원까지, 성인인 일

반 가계우대와 세금우대가계정적금 및 근로자 장기적금을 포함, 모두 98만원까지 매달 부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후 3년이 지나면 학자금 5백만원, 결혼자금 1천만원, 주택자금 5천만원까지 각각 대출받을 수 있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자동대출도 가능하다.

한아름통장

상업은행은 「한아름어르신통장」과 「한아름또또연금신탁」을 개발해 9월 16일부터 선보였다.

한아름어르신통장은 50세이상 노년층을 가입대상으로 해 통장 하나로 정기예적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예적금과 신탁거래를 모두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고 2천7백만원(한도 중역세 3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도록 설계 됐다.

특히 이 상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고 예금 잔액 5백만원을 6개월이상 유지한 고객은 우대회원 자격을 취득, 1회 무료건강진단 서비스와 대역금고 무료이용 등 부대서비스가 제공된다. 3개월이 지난 일반회원에게도 축하카드 증정, 유료실버타운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주어진다.

또 통장자동대출로 5백만원, 적금대출로 2천만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한아름또또연금신탁은 기존 신탁상품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노후생활연금신탁을 개선한 것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입금을 할 때마다 그 때까지의 이자가 매년 복리로 계산돼 수익률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18세이상 실명의 개인이고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단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1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적립방법은 금액이나 횟수일자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자유롭게 입금하면 되고 이자는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받거나 매달 받을 수 있으며 이 두가지 방법을 혼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5년만기로 가입했을때 일시불로는 세금공제후 8백46만9천원을 받게 되고 연금식일 경우에는 5년간은 매월 19만원, 10년간은 12만4천원씩 이자를 받는다.

황금알 저축통장

평화은행의 황금알저축통장도 절세를 통해 실수익률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꼽힌다. 이 상품은 저축 또는 자유저축예금을 모계좌로 해 3년간 매월 정기예금을 불입하고 이 정기예금 및 이자를 세금우대정기적금으로 자동재적립토록 설계돼 전체에 대해 5%의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의 세후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16.7%에 달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고 가입기간은 6년1개월이며 5백만원의 평화죽일대출과 적립금액의 10배 범위내에서 3천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증권투자

금융실명제 실시로 주식과 채권등 증권시장은 당분간은 매물 증가등으로 다소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증시구조를 왜곡시켰던 가명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검은 돈」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불특정다수의 정당한 자금으로 적절한 이윤을 추구하는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망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자산 종합과세가 오는 96년이후로 늦춰지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김영삼대통령 임기중에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여유자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실명제 시대를 맞아 일반주식투자자들에게 「이론과 「작전」이나 돈으로 떨어붙이는 금융장세보다는 기업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실적장세가 주식시장의 기본구조가 될 것에 대비, 이에 적합한 투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종전처럼 근거가 희박한 풍문에 따라 뇌동매매를 일삼던 투자자세에서 벗어나 기업의 내재가치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채권시장은 가명 및 차명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채권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으로 수익률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익률 상승(채권가격 하락)때 채권을 샀다가 수익률하락(채권가격 상승)때 팔아 이윤을 올리는 수익률 변동을 이용한 투자가 유망해 보인다.

중산층이하 투자자의 경우 세금우대채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 면세, 또는 절세형 채권상품은 실명제 시대에 더욱 유리한 자산운용수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위 내용은 동아일보 8월 30일자와 매일경제신문 9월5일자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증 있는 전문직종이 유망하다

금융실명제 시대를 맞아 여성의 재산권·경제력에 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정 수입이 있는 직장여성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결 나운 편,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리크루트지에서 소개한 여성 유망직종 베스트10을 간추려 소개한다.

관광통역안내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은 자원의 소모가 적으면서 외화획득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에 있어 최일선에 나서서 관광 외화 수입 증대와 한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통역안내원이다.

관광통역가이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사전에 예약된 손님들 공항으로 마중 나가 맞고, 여행비를 산출하며,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여행자들의 관광일정에 관한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관광통역안내원은 관광여행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광여행사에 소속

해 있더라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3~4일 밖에서 일하면 1~2일은 쉰다.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은 1년에 한번 실시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학에서 관광통역을 전공하거나 관광 관련학을 전공하는 방법, 두번째는 관련 사설학원이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는 한국관광공사부설 관광교육원(545-5044)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다.

관광교육원은 1년 동안 통역과 관광업 전반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이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대부분 합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이곳에서는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험은 면접과 필기로 나뉘며 면접 시험에 합격해야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 평가한다. 2차 필기시험 과목은 응시해당 외국어, 관광법규, 국사, 한국지리, 일반상식으로 외국어가 5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시험시기는 영어와 일어는 보통 2월, 그외의 외국어는 5월에 시험이 치러진다.

전산응용설계사(CAD)

CAD(Computer Aided Design)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방식으로 설계자가 구상하는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이용해 도면화하는 것이다.

CAD는 우리나라에 1985년경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CAD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하드웨어의 값도 비싸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90년대에 들어서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분야이다.

CAD요원은 각 작업의 담당자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축물 및 제품의 내용에 따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컴

퓨터로 설계하는 일을 한다. 즉, CAD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간의 구성능력만으로 설계가 복잡한 대규모 공장의 배관이나 초대규모 집적회로의 회로 패턴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설계할 수 있다.

CAD요원의 진출분야로는 기계 설계, 전기·전자·회로 설계, 건축·토목 등 건설분야, 산업 디자인 분야, 가구제작 분야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옥외간판제작이나 부품 디자인, 인테리어, 의류 등에도 CAD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서울 시내만 해도 CAD교육을 하는 전산학원은 50여 곳이 있고, 이들 학원에서는 대부분 월 20만원 선의 수강료를 받고, 6개월과 1년과정으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수료후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학원의 정규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취업은 쉬운 편이지만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더욱 유리하다. 자격증은 ATC증서와 국가공인 자격증(전산응용설계기사)이 있는데, 다른 분야와는 달리 ATC증서가 국가 공인자격증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ATC는 미국 Auto Desk사의 Auto CAD 지정 교육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ATC 인정서는 Auto CAD를 사용하는 어느 국가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외국의 유학이나 이민을 갈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ATC 증서는 그 증서를 수여하는 학원을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면 취득이 가능하지만, 전산응용설계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시험과목은 기초역학,

기계설계, CAD&CAM 기초 및 기계제작법, 전산응용설계, 전자계산기 일반 및 프로그래밍 등 5과목으로 시험 공부하기가 좀 힘든편이다.

귀금속 세공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품뿐만 아니라 장신구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똑같은 모양의 액세서리를 거부하고 값은 비싸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것을 찾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부각되고 있는 직업이 바로 귀금속세공사이다.

귀금속 세공업은 기계화할 수 없는 핸드 메이드(Hand made)라는 점에서 일단 높은 회소가치를 갖는다.

귀금속세공사의 일은 금, 은, 백금과 같은 귀금속을 사용하여 식탁용품이나 반지, 목걸이와 같은 신변 장신구를 만들고 수리하는 것과 보석을 셋팅하고 고정시키는 것인데 점차 귀금속업의 대형화 추세를 타고 전문 자격증의 필요도 커지고 있다.

조형감각이나 창조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귀금속 세공사는 정교한 세공작업을 할 수 있는 면밀함과 손재주가 요구돼 여성들에게 더 알맞다. 섬세한 감각과 지구력을 가진 여성이라면 스스로의 창의성을 더해 욕심내 볼만한 직종이다.

귀금속 세공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해서 1개월 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3회에 걸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과목은 1급의 경우 공예의장, 귀금속 재료,

귀금속 가공, 귀금속 감정 및 작업안전 등이며 2급은 1급의 시험과목에서 귀금속 감정 및 작업안전만 제외된다. 실기시험은 제시된 도면과 재료만으로 정해진 시간(2급 5시간, 1급 7시간)내에 작품을 완성해야 하며 규격과 외관, 접합의 정도를 보아 합격여부를 판정 받게 된다.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 체로 보고 만드는 모방작업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므로 1~2년간의 숙련 기간을 통해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귀금속 세공사가 되는 길에는 사설 학원을 다니는 것 외에 YWCA 직업훈련교육이나 한국산업훈련원 산하의 직업훈련원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판매사

판매사란 상품판매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유통업체,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시장 등지에서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분석 및 계획수립, 경영분석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특별한 기술없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1982년부터 판매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이래 점차 전문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판매사는 1, 2, 3급으로 나누는데 3급 판매사 자격증은 일반 판매직으로 판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업체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2급 판매사 자격증은 상품지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터득하고 업체에서 부분적인 관리업

무와 현장 판매원에 대한 지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1급은 경영자나 지점장급으로 도소매 업체에서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직 시험이 실시된 적은 없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비롯한 각종 도·소매시장, 백화점, 쇼퍼센터, 종합 구판장, 연쇄화 사업소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판매사 자격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치러진다.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2급은 대졸, 3급은 고졸수준이다.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마케팅연구원(752-6075), 한국유통연구소(544-4126), 한국공업표준협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은 상공부의 위탁을 받아 판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YWCA 근로여성회관(804-8751)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강좌를 이용해도 좋다. 이는 12주 과정으로 매주 화·목·토요일에 3시간씩 강의가 있다. 40세까지의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컴퓨터 속기사

세분화되는 속기영역에 새롭게 자리잡아가는 대표적인 직종인 컴퓨터 속기는 손으로만 필기를 하는 속기사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속기의 속도를 한층 진보시켰다.

컴퓨터 속기는 컴퓨터에 연결된 타자기 모양의 속기 기계를 이용하는데,



조형감각이나 창조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귀금속 세공사는 정교한 세공작업을 할 수 있는 면밀함과 손재주가 요구돼 여성들에게 더 알맞다. 섬세한 감각과 지구력을 가진 여성이라면 스스로의 창의성을 더해 욕심내 불만한 직종이다.

사람의 말을 타자기 형태의 속기판에 치면 그 내용이 모니터에 한글로 그대로 나타나고 즉시 프린터가 가능한 최첨단 속기법이다.

일반 속기사가 1시간 동안의 회의 내용을 속기하여 한글로 다시 번문(翻文), 문서로 만들기까지는 7~8명의 속기사가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컴퓨터 속기판을 사용하면 2명 정도의 속기사가 2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현재 활동중인 컴퓨터속기사는 불과 70여명으로 컴퓨터 속기의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인해 속기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양성기관이 적고 아직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당히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직업이다.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속기사 시험은 학력이나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어려운 회의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을 소유한 고졸이상의 사람들이 응시자의 대부분이다.

컴퓨터 속기는 배우기가 쉬운 편이지만 아직은 교육기관이 많지는 않다. 서울에는 고려컴퓨터학원을 비롯해 4~5곳의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 속기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지방에도 10여 곳에서 컴퓨터 속기 교육을 시키고 있다.

변리사

변리사는 발명가의 의뢰를 받아 특허청과 법원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같은 공업소유권의 인가와 특허에 관한 출원

업무를 대행한다. 즉, 지적소유권의 보호, 관리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기술 고문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발명시 고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특허 출원도 1년에 3만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가면서 국제간의 산업재산권 보호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져가고 있다.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하는 방법, 둘째, 개업하는 방법, 셋째, 기업체의 특별 전담부서(현재 540여 기업체에 설치되어 있다)에 입사하는 방법, 넷째, 특허청의 심사관, 심판관으로 일하는 방법, 다섯째, 외국특허사무소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다.

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공계에 관한 지식이 많아야 한다. 다루는 분야가 산업소유권이기 때문이다. 또 법학적인 지식도 많아야 한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외국기업과의 교류가 많으므로 외국어 실력 또한 필수적이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시험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 2차시험은 논문식이다.

1차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는 다음해에 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1, 2차의 어려운 판문을 뚫어도 바로 변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후 국제특허연수원에서 3

개월, 변리사 사무실에서 9개월 등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받게 된다.

기계제도사

근래 들어서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를 이용하게 된 기계분야의 산업체제는 매우 빠른 발전속도를 갖게 됨에 따라 지면위에 매우 축소된 모습의 세밀한 기계제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항공·조선분야에 있어서는 기계제도의 영역은 더욱 넓다고 하겠다.

기계제도사는 필요시 복잡한 기계의 단면도, 투시도를 선이나 문자 디자인을 통하여 그려내야 하므로 관찰력과 기계구조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계세계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기계에 관한 상식이 없는 여성이 해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계에 대한 상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에 오히려 어울리는 일이라 하겠다.

여성의 경우는 YWCA에서 실시하는 여성 기계제도기능사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비교적 수월하다.

한편 얼마전까지 도면을 그릴 능력만 있으면 제도사로서 일할 수 있었지만 92년부터 이 부분에 국가공인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기계제도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외장기사)

인테리어 디자이너란 인간이 거주하는 실내공간을 아름답고 능률적이며

쾌적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아름답고 편안하며 독특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직종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 인테리어 테크레이팅업체, 점포 설계사무실, 가구회사, 건설회사, 방송국, 영화사, 스테이지 디자인 회사이다.

인테리어 분야는 특히 미적감각과 섬세함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사무실에서 기획도면 제작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자기가 디자인 한 것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게 되면 야근, 지방출장 등도 잦아지므로 강한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의 연속성으로 모든 사물을 연속시켜 보는 능력도 필요하다.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는 학원을 통한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학원을 선택할 때에는 실무위주의 교육을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디자인 자격증 시험은 1차로 4지선다형 필기시험을 치르고 2차는 논술형 및 도면작성 실기를 치른다. 필기시험과목은 외장기사 1, 2급 모두 건축일반, 실내디자인론, 건축환경, 색채학, 인간공학, 건축재료이다.

환경기사

환경기사 자격시험은 76년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종목으로 채택되어 80

년도에 환경기사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되었으며, 83년도에 이르러서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환경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오염되어 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시설물을 평가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며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환경기사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 및 진동 환경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등 4가지 전문분야로



나뉘어 있다.

계속되는 환경분야의 의무조항 신설과 단속, 환경문제에 관한 높은 관심 등의 영향으로 오염물질의 주 생산자인 기업들의 자세도 변화하고 있어 요즘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회사내에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특히 철강, 유화산업, 전자산업, 필름업, 기계산업 등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업종에서는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2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전문공무원(7급), 보건연구소, 환경청 환경감시원, 방지시설용역업체 등 진출의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인 환경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연 5회 정도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92년 3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전문대 졸업 이상자 혹은 고졸자로 해당 분

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졸자 혹은 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학력에 상관없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 졸업 이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각 분야 모두 2차에 걸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1차시험에서는 개론과 각각의 오염방지기술, 관계 법규 등을 객관식으로 테스트하며, 2차시험에서는 오염방지 실무에 관해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전문비서

이제까지 경영자를 단순히 보좌하던 비서의 업무를 전략적 참모역할로 한 차원 높은 전문비서 제도의 도입은 92년부터 실시된 비서자격시험의 실시와 함께 비서를 명실상부한 전문직으로 격상시켰다. 이로 인해 현직 실무자들



과 취업준비생들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능력을 갖춘 전문비서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며 상사에게 꼭 필요한 보좌역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기업측에서도 앞으로는 경영합리화의 측면에서라도 다양한 능력을 갖춘 전문비서를 선호할 것이 분명해 전문비서직은 여성들의 인기직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서를 필요로 하는 곳은 기업을 비롯하여 병원, 학교, 변호사사무실, 개인연구실, 교회, 대서관, 호텔 등 매우 다양하다.

비서의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다. 비서업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친절한 성격과 인내심, 책임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회사 내의 위치상 기밀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상사의 부재시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상황판단을 신속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고학력 여성이 전문비서직에 도전할 경우 탁월한 사무능력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능력, 상사의 지시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메모, 이행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워드프로세서나 타자기를 통한 문서의 작성능력, PC를 이용한 각종 자료의 정리 취합능력, 외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회사의 경우 외국어 실력 등이 포함된다.

아직까지는 비서채용이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서자격시험 실시로 비서자격증을 취득한 사

람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비서자격증을 취득하는데는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대학에서 비서학을 전공하는 경우, 또 하나는 비서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이화여대, 덕성여대와 대전산업전문대, 부산 경영전문대, 강원전문대, 전주전문대, 동래여전, 부산여전, 동주여전, 배화여전, 김천전문대



등 두개의 정규대학과 아홉개의 전문대학에서 비서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 YWCA(779-4900), 여성신문 교육문화원(568-1686), 서강대 국제평생교육원(705-8218) 등 세곳의 사회교육기관에서 비서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비서자격시험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며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실시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상식, 경영학원론, 비서실무, 생활영어이며, 실기시험은 한글타자, 영문타자,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영문속기 중 택일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회사내에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특히 철강, 유화산업, 전자산업, 필름업, 기계산업 등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업종에서는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2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전문공무원(7급), 보건연구소, 환경청 환경감시원, 방지시설용역업체 등 진출의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이해

추애주 (연세대 여성학 강사)

여성의 심리적인 특성,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하나의 사회적인 구성물이며 자연적인 필연성은 없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프로이드는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남성만이 정상적인 인간이며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녀의 해부학적 차이를 여성의 결핍으로 이해해왔다. 그는 여성이 남성과 해부학적으로 다른 점이 여성에게 고통, 좌절, 무력감을 갖다주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남녀관계 및 그 구조가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방법은 여성심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열등감과 질투심이 많고 수동적, 피하적, 자기도취적, 의존적이며 신념, 양심, 자기확신이 부족하며, 지적인 성장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양성사이에 오랫동안 받아들여져온 보편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여성의 심리학적 특성의 문제는 학문적으로 프로이드의 이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론의 기반은 이디프스 콤플렉스이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리비도라는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등의 발달적인 단계가 있다. 구순기, 항문기의 단계에서는 성에 관계없이 남녀 아이 모두의 애정의 대상은 어머니이다. 그후 남근기가 되면 소년의 경우에는 어

니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생기지만 아버지라는 존재와 거세된 여성에 대한 자기불안으로 이 복잡한 감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된다. 이것이 바로 거세불안이다. 아버지가 이런 욕망에 대한 별로 자신의 성기를 거세할 것이라는 불안이나 공포가 남자아이로 하여금 자기방어기제를 찾게 만든다. 따라서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단념하게 되며 그대신 다른 외부적인 것을 즉, 학문, 종교, 과학등으로 관심을 돌린다는 것이다. 결국 이디프스 콤플렉스를 극복한다는 말이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처음 두 단계는 남자아이와 같으나 남근기에서 우연히 남자아이의 성기를 보고 자신이 거세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머니가 자기를 거세했다고 단정짓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아버지에게 애정을 옮긴다. 결국은 생물학 때문에 여성은 이디프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결여되었다는 확신을 갖게되고 이 결여에 대한 의식이 기존의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의 확고한 기반이라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가부장제적 일부

일체제 가족구조가 상정되어 있다. 이것의 전형적인 형태는 남자는 수입자, 여자는 가사관리자, 육아담당자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은 상품생산자, 여성은 생명생산자이다. 명목상으로는 두 가지 역할은 같이 중요하며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생산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품생산의 역할이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은 같은 수준의 지위, 권력, 이익을 나누지 못한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히 여성의 경제적, 정서적 의존이 불가피하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지배, 복종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구조는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자기표현의 기회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이 부정되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없으므로 여성은 자연히 자신의 성에 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외 다른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존전략과 결부되어 발달이 되었을 것이다. 프로이드는 생물

학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남·녀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간과한 점이 있다. 여성의 심리적인 특성은 사회적인 구성물일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인류학적인 연구가 있다. M. Mead의 뉴기니아 세 부족, Arapesh, Mundugomor, Tchambuli족에 관한 것이다.

Arapesh족은 이론적으로는 가부장제로서 남자들로된 구성된 영성만 정치기구가 있다. 이곳에서 사회 범법자들을 다스리기도 한다. 이들 아라페쉬족들의 남녀의 차이관 출신 그 자체의 생물학적 차이 이외에는 거의 별 다른 것이 없다. 결혼한 부부는 우리사회처럼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의 역할을 함께 한다. 식량확보와 육아·가족의 안녕등에 대한 일을 모두 함께하며 그들의 관계는 협조적이며, 남·녀의 성차를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들의 성품은 남녀가 다 온순하고 조용하다.

Mundugomor족은 모계도 부계도

아닌 사회로서 친족이 교직 되어 있는 사회이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인 외할아버지와 연결되고 딸은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와 연결된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권은 딸에게 상속되며 어머니의 재산소유권은 아들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자신의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이들의 성품은 아라페쉬족들처럼 남녀차이가 없지만 다른 점은 남·녀가 함께 공격적이고 난폭



하며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Tchambuli족은 우리사회와는 정반대의 관습을 가지고 있다. 여성이 생산자로서 생선을 시장에 대파는 일을 한다. 남성은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예술적인 취향이 발달되어 있다.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성격은 대체로 지배적이다. 남성은 가정에서 소외되는 편이며 여성에게 의존적이다. 여기서는 우리사회의 여성적인 기질인 수용성, 수동성, 양육기질이 남성의 기질로 되어 있다.

위의 연구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고정관념인 성별 역할분리에 대한 근거와 여성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생각에 깊은 회의감을 던져준다. 3부족중 어느 부족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위, 역할, 성품이 열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심리적인 특성,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하나의 사회적인 구성물이며 자연적인 필연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프로이드는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남성만이 정상적인 인간이며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남·녀의 해부학적 차이를 여성의 결핍으로 이해해왔다. 그는 여성이 남성과 해부학적으로 다른 점이 여성에게 고통, 좌절, 무력감을 갖다주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의 생물학이 여성의 운명이라고 해석하였다. 남성의 시각에서 볼때 여성이 남성과 다른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핍으로 받아들이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을 여성과 비교했을때 남성이 결핍된 것이 있다. 그것은 재생산 기능이다. 남성의 결핍인 재생산 기능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Paige and Paige의 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원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부족중에는 couvade 라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다. 이것은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임신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임신과정중에 임산부가 취해야 할 모든 규칙이나 금기를 함께 지켜야 하고 불편함도 함께 시늉이라도 하면서 경험해야 한다. 남편도 임신이라는 하나의 생물학적 과정에 주인공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의 순간은 임신의 중요한 절점으로서 남편도 아내와 함께 산고를 하고 출산후 요양기간중에도 함께 누워있다. 손님이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러 오면 남편이 인사를 받는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남편이 지나치게 이 역할을 열연했기 때문에 아내보다 더 오래동안 누워있는 경우도 있다. M. Mead가 연구한 Arapesh족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 남성들은 재생산기능의 결핍 때문에 겪는 사회적 소외감과 자연에 대한 배신감에 의해서 여성과 다른 의식(consciousness)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Mary O'brian은 그녀의 "재생산의 변증법"이란 책에서, 남성의 이런 결핍에 대한 의식은 남성우월성에 대한 집착과 남성의 여성지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화가 있다. Mead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두 남자를 만났다. 그녀가 한남자에게 미남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하는 말이 10년전에 이 남자는 정말 놀랄만한 미남자였는데, 지금은 그동안 아이를 낳느라고 많이 늙은 모습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습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물적, 사회적 자원을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의 재생산에 대한 결핍을 보상하려는 남성의 상징적인 노력이라고 Paige는 해석하였다. 남성들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강력한 조직이 있어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가부장제적 사회와는 달리 이런 의식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고 교환자원 또는 남성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사회에서 발생한다. 남성들은 재생산기능의 결핍 때문에 겪는 사회적 소외감과 자연에 대한 배신감에 의해서 여성과 다른 의식(consciousness)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Mary O'brian은 그녀의 "재생산의 변증법"이란 책에서, 남성의 이런 결핍에 대한 의식은 남성우월성에 대한 집착과 남성의 여성지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노동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 결정되는 것처럼 재생산의 실천을 통해서도 결정되는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은 남, 녀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 재생산의 전과정의 순간, 순간을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분석해보면 남성이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순간은 수정의 한 순간뿐이며 그외의 전과정으로부터 소외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종족,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되는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 해야만 된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부성을 사회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남성만의 강력한 협동과 유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조직을 만들어 여성을 지배하고, 재생산의 생산물인 아이를 전유할 수 있는 남성우월성의 근거를 만들었다. O'brian의 이론은 남성의 부권의 필요성과 남성의 결핍이 여성의 결핍으로 전도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여성의 심리학으로 돌아가서 보면, Mead나 O'brian의 이론에서, 우리는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수동성, 피학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특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여성이 수동적이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문화에서 여성 스스로 생존의 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지만 제도, 관습, 문화가 끊임없이 여성에게 수동성을 강요해왔다. 예를 들면 동남

아시아의 부족들 가운데서는 출생에서부터 여아에게는 귀가 많이 늘어지도록 무거운 귀거리를 달아줌으로써, 여아의 행동에 지장을 주어 여성의 소극적인 행동을 가르친다. 또 다른 부족은 여성의 긴 목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 두꺼운 목거리를 달아주어 여성의 자유스러운 행동을 막는다. 그 유명한 중국의 전족도 여성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다. 그 외에도 영국 Victoria시대의 창백하고 가냘픈 여성에 대한 가치,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의 마른 여성에 대한 선호등은 여성의 수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성품은 남성지배를 용이하게 해준다. 피학성도 희생과 헌신, 봉사를 요구하는 모성의 확립을 통해서 여성을 자신의 고통을 즐기는 특성이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여성의 자기도취(narcicism)도 Thomson은 이렇게 설명한다. 여성의 재생산 기능은 스스로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남성과의 의미있는 성관계, 지속적인 사랑관계를 필요로

한다. 여성은 자신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열망이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된 것이다. 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여성을 자신의 몸과 성품을 유혹적으로 만드는 경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신념이나 자기확신, 양심에 대한 열세도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는 문화에서 자연히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남성의 의견을 좇을 수밖에 없다. 그외에 여성의 지적성장의 조기정지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성은 30살이 되면 이미 자신의 인생이 결혼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된 상태이다. 결혼속에서 여성의 역할이란 반복적인 가사노동 또는 보조자로서 더 이상 지적인 탐구의 성장이 필요없을 뿐더러 외부적인 자극이나 요구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여성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은 가부장제적 문화에서 여성의 생존 조건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최근에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여성의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여성과는 다른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안전을 성적인 가치에 두지 않는 여성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통일독일의 여성문제 그리고...

이영남 (연합통신 기자)

공산주의 체제에서 해고될 염려가 없는 안정된 직장과 오랜 출산 양육 휴가, 종일 탁아 등 취업여성이 바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려오던 옛 동독의 여성들이 통일 이후 최대의 피해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태국 봉제공장 화재로 여공 2백여명 숨져

지난 5월 태국 수도 방콕 교외의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2백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숨지는 참혹한 사고가 있었다. 전세계를 통틀어 사상 최악의 것으로 보이는 이 공장 화재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수출용 봉제완구를 만드는 '카네르 산업'에서 약 4천명의 공인들이 일하는 동안 출입문들은 언제나 바깥에서부터 잠겨져 있었다. 물건을 훔쳐 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치이다. 일이 끝나고 퇴근할 때만 경비원들이 한명씩 빠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을 열어주어 나가는 이들을 하나하나 감시했다.

불이 나던 날 1층에서 일하던 공인들이 맨 처음 연기 냄새를 맡고 이를 알렸으나 관리자들은 이들에게 제 자리로 돌아가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이 일이 있자니 두 차례 불이 났을 때도 이들은 공장을 떠나지 못했다.

불길은 삼시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섬유원단과 화학습에 옮겨붙어 공장 건물을 불지옥으로 만들었고 여공들은

잠긴 문을 열지 못해 절식하거나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 깔려 그대로 숨져갔다. 화재 경보장치도, 비상구도 없는 이 4층짜리 공장은 나중에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낡아서 지어진 건물이었다.

이날 화재에서 요행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부상을 입은 이 공장 여공 5백여명은 병원을 방문한 미국 산별노조(AFL-CIO) 태국 조사원에게 자신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태국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인 하루 1백바트(약3천2백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시간당 2백40원 풀인 하루 60바트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유명한 완구유통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작업환경은 태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여성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호주 사법부의 두 얼굴

호주에서는 최근 여성문제와 관련한 두건의 판이한 재판결과가 주목을 끌

고 있다.

하나는 남편이 부인을 강간한 사례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대법원의 데릭물렌 대법관은 재판중 "남편이 성행위를 거부하는 부인을 설득해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행위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 이 경우 평소보다 거친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배심원은 이에 따라 피고(남편)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를 방면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호주의 여성단체들은 물렌판사를 해임하라고 들고 일어났으며 원고인 부인은 판사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문제의 물렌 판사는 고법에 낸 진술서에서 자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폭력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다소 거친 행동을 염두에 둔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시드니 법원의 페트 오세인판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진지하게 다루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여성인 오세인 판사는 속옷만 입은 여성을 마술사가 몸으로 자르는 그림

이 그려진 광고판을 훼손한 5명의 여성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들 여성은 "벨리아 속옷을 입으면 언제나 좋은 기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속옷광고판에 "몸이 잘라져도"라는 귀절을 페인트로 써넣었다가 광고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오세인 판사는 이 경우 정식 범법자는 여성을 비하한 이같은 광고판을 내건 광고주라고 지적하고 피고 여성들은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오세인 판사가 "성에 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오세인 판사는 다른 여러 판사들로부터 자신의 판결에 대해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여성의 세계관은 남성과는 다르다. 우리는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호주 사법개혁위원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에바드 판사는 성에 관한 편견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폭력 문제를 다루는 판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를 제의했다.

●통일의 피해자 동독 여성

공산주의 체제에서 해고될 염려가 없는 안정된 직장과 오랜 출산 양육 휴가, 종일 탁아 등 취업여성이 바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려오던 옛 동독의 여성들이 통일 이후 최대의 피해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통일 이후 발생한 동독인 실업자중 65%가 여성으로 이들의 실업률은 70%를 넘고 있다. 통일 전까지 여성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던 교사직의 경

우 지금은 남녀 비율이 반반인 것으로 알 수 있듯 여성의 직업생활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고됐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재취업의 기회는 마지막으로 찾아온다.

특히 행편이 어려운 것은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 독신모의 경우이다.

결혼을 해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옛 동독에서는 20대 초반의 조혼이 성행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 부양의무가 없이 30대 중반에 들면 3쌍중 1쌍꼴로 이혼을 했다.

동독에서는 아기를 가진 독신여성은 철저한 탁아제도와 장기 휴가, 근무시간 단축, 고용보장 등으로 무리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옛 동독의 여성 취업률은 83%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호텔종업원으로 두 아기를 둔 27세의 독신모 우스트씨는 야간당직을 할 수 없어 해고된 후 지금은 시부녀보호소에서 실업수당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판매원으로 일하던 국영상점이 문을 닫은 뒤 운 좋게 지방신문 광고직원으로 재취업했던 한 어머니도 잦은 저녁근무로 석달만에 사표를 내야 했다.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 탁아소 운영제도와 남성과 똑같은 근무시간 때문에 옛날처럼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동독의 독신모는 빈곤의 한계에서 살고 있다고 여성인 리타 쾨스부트연방하원의장은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독의 출산율은 지난 89년 이후 64%나 감소했으며 전국적으

로 불임시술도 급증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여성을 고용할 때 임신여부나 출산의사를 묻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일자리는 적고 취업 희망자는 많은 동독지역에서 지금 이러한 질문은 거의 관행으로 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용주들은 아예 처음부터 불임시술 확인서 첨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마그데부르크 대학병원에서는 통일 전인 지난 89년 한해동안 8건에 불과했던 불임시술이 91년에는 1천2백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1천건에 육박했다. 시술자의 대부분은 35세 이하의 젊은 여성이며 아직 아기가 없는 여성, 심지어는 18세의 처녀까지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며 수술을 요구한다고 의사들은 밝히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고, 또 지키기 위해 여성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지만 이들에게 언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성유권자 연맹, 유권자 정치 태도 남녀비교 연구 자료집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신낙균)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조사, 분석한 자료집 「한국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형태의 남녀비교연구」를 발간했다. 「한국유권자의…」는 지난해 10월 전국 20세 이상 남녀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형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

근로여성협의회 재정난으로 해산

여성노무사 등이 중심이 되어 여성근로자를 위한 권익활동을 해왔던 「한국근로여성협의회」가 문연 지 1년 만에 재정난으로 해산됐다.

근로여성협의회(회장 이필원)는 여성노동운동 경향이 있는 전 노총여성간부를 비롯해 법률적 실무 지식을 고루 갖춘 여성 행정가, 노무사 등 오륙십명이 모여 기금 모금 출판회를 갖는 등 여성계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단체. 1년 동안 활동을 해왔으나 재정난, 단체 성격에 맞는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겹쳐 더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국근로여성협의회는 8월 10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했다.

YH 사건 14주년 김경숙 추모제

YH동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는 YH 사건 14주년을 맞아 마석모란 공원에서 김경숙씨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 김경숙 씨는 YH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강제연행과정에서 22세의 나이로 숨졌다.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북한 사회연구 강좌

한국통일여성협의회(회장 이정자)는 8월 31부터 11월 2일까지 10주간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사회연구 강좌를 실시한다. '한반도 해방과 분단', '남북한 이질체계 형성' 등의 강좌에 조순승의원(민주당), 김남식씨(평화연구소), 조형 교수(이화여대, 사회학)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유엔 종군위안부 문제 특별보고관 임명키로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소속인 '소수민족 차별 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새벽, "내전을 포함한 전쟁 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특별보고관을 임명, 그 연구의 결과를 제 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보고관은 작가이며 TV논평가인 다 차베즈(미국)로 결정됐다.

"여성전용직종 정년차별 부당" 김영희 씨 소송에 중노위 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7일 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김영희(54) 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전화교환직 정년을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종과는 달리 53세로 정한 사규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귀시키라고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여성전용직종의 정년 차별을 무효화하는 첫번째 판정으로 앞으로 여성노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지방자치 남녀의원 역할 비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손봉숙)는 지난 14일 여성지도자 교류마당을 반도아카데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봉숙 소장은 '지방자치 2년의 역할: 남녀의원의 역할 비교분석' 논문 발표했다.

김효선 (여성신문 기자)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간담회



본회는 지난 9월 7일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동빈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 서기관, 이필영 상업은행 영동출장소 소장, 이양자 세무사를 비롯, 각계 여성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동빈 서기관은 금융실명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필영소장은 일선 금융창구에서 접하고 있는 주부고객들의 억울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양자세무사는 25년 이상된 부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교해놓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기존의 유산과세형을 상속자 각각에게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부부별산재가 아닌 부부공유제의 개념 도입 등, 여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용신봉사상 및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발표

본회는 지난 9월 16일 제29회 용신봉사상 수상자로 이길여 인천 길병원 이사장을, 제9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이효재·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선정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목수의 최용신 여사를 기리는 사회봉사부문의 용신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길여 이사장은 의대를 졸업한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극빈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인 무의촌과 농어촌지역, 낙도지역 등을 돌며 의술을 베풀 공이 인정됐다. 지난 91년부터 무료로 시술한 극빈층 심장질환자는 98명, 자궁암 무료검진자는 16만7천7백38명이나 된다.

한편, 이효재·윤정옥 공동대표는 지난 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발족해 50년 가까이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던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를 사회문제로 끌어올려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진상조사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공로로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뽑혔다.

시상식은 9월 23일 오전10시 이화



여고내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있었다.

삼성그룹에 여성전문인력 공채실시에 대한 감사공문 발송

본회는 '93년 8월 30일, 최초로 여성전문인력 500명을 공개모집하는 삼성그룹에 감사의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직원의 채용, 승진, 대우에 있어 남녀차별을 완전히 철폐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여성전문인력을 대거 공개채용하는 등 여성인력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여협은 이 같은 좋은 시도가 시행착오나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어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노위, '남녀차별정년 퇴직 무효' 결정

본회는 지난 92년 12월 31일 53세로 차별정년퇴직 당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 김영희씨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요청공문등을 발송하는 등 남녀차별정년 철폐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온 바, 중앙노동위원회가 9월 7일 정년차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중노위는 김영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을 통해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58살인 다른 직종의 정년과 차별을 뒤 53살로 정한 사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통신은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전화교환 직종뿐 아니라 타자수, 간호보조원등 여성전용직종의 정년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무제 2 장관과의 간담회

본회 회장단 및 임원, 이사 26명은 지난 9월 8일 정무제2장관의 초청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자 정무제2장관은 "새 정부 출범이후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및 고용평등분야에서 방향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여성의 발전은 여협이 그간 전국여성대회등을 통해 여성의 의식을 꾸준히 일깨운데 힘입은 바 크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여성지도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며 본회와 오찬을 함께 했다.

환경처 장관과의 간담회

본회는 지난 9월 14일 환경처장관과

「여성단체의 환경보전실천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본회 회장단, 임원, 이사 2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황산성 환경처장관은 환경처의 주요현안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여성단체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정정 청원

대한간호협회 박정호회장은 10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교육법 제79조 1항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수정함과 동시에 양호교사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냈다.

이 청원서에서 간협은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능력개발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국가의 건강기반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초·중·고교에 보건교과과정을 활성화하고, 둘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건교육은 체육교과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으나 체육교과의 보건편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맞도록 재편성하는등 보건교과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교과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양호교사가 가장 바람직하며 특히 이미 교육계에 4천2백여명의 양호교사 배치되어 있어 예산이나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청원서에 교육법 제79조1항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수정하고 교원의 종별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을 「양호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 2급)으로 하되 보건교사로 칭한다」로 개정해줄 것을 청원하고 아울러 교육법 시행령 109조의 중학교 교과와 112조의 고등학교 교과에 「보건」이라는 명칭을 삽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우먼스클럽

국제 청소년대회 참석

한국우먼스클럽의 19기 성아 청소년 대표들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6일까지 미국에서 있는 국제청소년대회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93 하반기 주부취업대비 단기훈련안내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조리기능훈련원에서는 주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과정의 조리사보조원 교육을 하반기에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용 유흥인력인 주부에게 노동강도가 비교적 낮은 조리사보조원 취업에 필요한 현장 적용기능을 단시일내에 습득케하여 직업사회일선에서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주간의 단기 훈련을 실시한다.

- 실시기간
1993년 10월11일~10월15일까지
- 모집인원
주부60명으로 선착순 접수
-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 및 교육장소
한국조리기능훈련원(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 문의전화
02/833-1624, 845-7925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모스크바 연수 및 지부방문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는 지난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이사 상임위원 및 부장 20여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공산주의 본거지였던 모스크바, 7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하고 새로이 자본주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는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상을 목격하였고 아울러 초기 자본주의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 갖가지 사회적인 비참상을 보면서 이데올로기의 오류가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게 만드는가를 느꼈다.

한편 본연합의 모스크바지부를 방문하여 지부장과 회원들을 만나고 활동상황을 들었다.

지부활동은 초기단계로 우선 '젊은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하에 공산주의 몰락이후 가치관의 부재로 뚜렷한 목표없이 그저 안일하게만 살아가려는 그들의 태도를 지양시키고, 세계평화차원에서 소련의 무궁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도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한번 소련을 바라보며 일주일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산구 시민교육 및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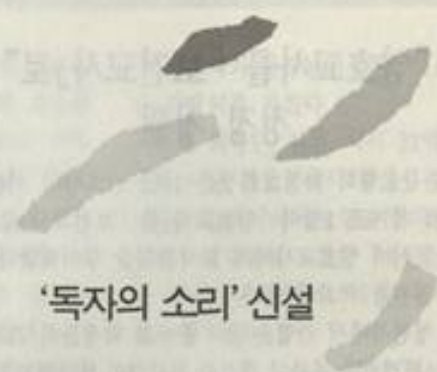
전국여성회는 지난 8월 30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새시대 여성, 이렇게 달라져야한다"는 주제로 시민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약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용산구 정
정식회장의 인사, 여협 김경오회장의 격려사, 본회 문상회
회장의 주재강연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장은 이 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제도개편과 국민차원에서의 시민운동이 하나로 발맞춰가야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본회에서는 각 구 시민교육 및 의식개혁캠페인을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부정부패는 TV나 신문에 보도되는 소수인의 일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작은 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부터' 운동(나부터, 하나부터, 지금부터) 실시를 주장,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교육을 마친후 회원들은 남영역과 용산역부근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독자의 소리’ 신설

월간 「여성」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그달그달의 활동내용과 회원단체의 소식 및 국내외 여성계의 소식등을 전하고 또한 여성문제 및 여성들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애독하시는 일반독자 여러분들이 그간 여러 통로를 통해 읽으신 소감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독자의 소리'란을 신설해 독자의 요구사항과 소감을 활자화하고 「여성」의 편집에 확실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내주실곳: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출판공보부
- 전화: 794-4560 796-4560
- FAX: 796-4995

회	회	장	김	경	오	584-1426
부		이	연	오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부	회	정	연	숙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서		김	옥	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성아파트 B-909	783-2924
서	기	강	인	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032-93-3493
회	기	사	회	자	파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503-4691
감	계	최	경	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아파트 805	796-7557
조		김	정	애	종로구 관철동 260 세론마음실	732-9585
재	직	백	요	란	강남구 신사동 615-4 (주)인테크	511-0031
출	정	이	은	식	도봉구 수유5동 510-20	352-8607
기	관	양	옥	숙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561-2630
사	리	이	연	기	대주시 북구 노원2가 313-12	053-32-4472
	위	정	정	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성아파트 B-909	783-2924
	보	조	정	순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5-1305	562-6416
	구	박	정	호	강남구 개포동 강남아파트 8-119	572-4308
	원	김	금	래	노원구 증계본동 4블록 신동아아파트 115동 603호	934-7866

회원 단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박정호	충구 병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한말숙	도봉구 상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이옥기	충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박정자	충구 묵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정정순	충구 영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박영혜	강남구 압구정동 408 조오련수영고실B/D 2층	516-9808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목단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정숙자	충구 봉래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태숙	성동구 중곡4동 64-30 24동1번	457-7961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서대문구 용문동 265-90	303-2112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연숙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52-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정연심	서초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협회	이예자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4층	631-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김민제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조정순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704호	842-4334
국제송공연합전국여성회	문경희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통일여성안보회	정옥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숙경숙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정자	용산구 한강로 3가 40-316	790-5200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숙	서초구 양재동 342-5 협진빌딩 201호	571-2999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유수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23-1250

편집후기

입조랑 부족으로 비가 억지 않는 데 대한 걱정이 다들 컸다.
그런데 회한하게도 여름 꼬트머리와 가을의 문턱에서 한낮의 태양은 사람들의 시름을 씻어내듯 뽕뽕거렸다.
농부들의 정성과 사람들의 기원이 쌓여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여성의 문제도 그렇게 뽕뽕 개일 날이 멀지 않지 않을까?
여성들의 정성과 기원이 나날이 쌓여가니까.

월간여성 • 1993년 9월호 통권 311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김경오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해럴드

사진식자 : 현라기

발행일자 : 1993년 9월 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강로 37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조정순

위원 : 김효자 / 문현경 / 박금옥 /

서은경 / 신동식 / 오종자 / 박영혜

담당 :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알아봅시다.”

발효조미료

발효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해서 인체에 유익한 천연성분을 생성하는 것



발효식품의 예

간장, 된장, 김치, 젓갈, 식혜, 식초, 요구르트, 치즈, 버터, 빵, 주류 등

발효조미료의 사용방법

발효조미료 미원은 냉수나 온수에 모두 잘 용해되고 가열에도 안정하므로, 언제 넣어도 좋으나 일반적으로 불고기, 양념구이 등은 익히기 전에 국이나 탕 등은 끓기 직전이나 끓은 후 넣는 게 좋다.



발효조미료의 성분

발효로 만들어지는 글루타민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아미노산 중에서 유일하게 맛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미료의 주성분으로써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 글루타민산은 모유나 우유, 치즈, 쌀, 콩, 쇠고기, 토마토 등 우리가 늘 섭취하는 모든 천연식품중에 풍부히 들어 있으며, 인체 내에서도 스스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성분이다.

발효조미료의 제조방법



사탕수수에서 원당을 생산하여 물과 영양분을 배합하고 미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뒤, 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시키면 글루타민산이 만들어진다. 이 글루타민산에 나트륨을 결합시켜서 얻어낸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바로 감칠맛을 내는 발효조미료인 것이다.

인체 안전성에 대한 주요 국가의 평가

유엔의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 유럽공동체의 과학위원회 등은 각각 1987년과 1990년에 발효조미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절대 안전하며, 일일섭취 허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미국의 FDA도 연방 규격집의 안전한 식품 리스트에 수록하고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부도 1986년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임을 공식 발표하는 등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하고, 사용량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 유엔 등 주요기관의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MSG는 인체에 자극적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다.
- 생후 12주 미만의 영유아들도 성인과 똑같이 MSG를 대사 해낼 수 있다.
- MSG에 대한 더 이상의 안전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MSG : 글루타민산나트륨·발효조미료)